

교양과목 학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중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2022년 2학기부터 대면 체제로 전환되자 교양과목 학점 인플레이션(인플레) 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 서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업과 평가방식이 비대면수업과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2022년 1학기까지 전공과목 학점 인플레 현상이 지속됐다. 그러나 2022년 2학기부터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대면 전환 이후 완화/대학주보 제

1703호 (2023.05.09.))

전공과목 학점 인플레 현상 해소에 이어 교양과목 A학점 비율도 제 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교양과목 A학점 비율은 40.9%였다. 이후의 교양과목 A학점 비율은 ▲2020년 1학기 62.1% ▲2020년 2학기 60.9% ▲2021년 1학기 59.7% ▲2021년 2학기 60.9% ▲2022년 1학기 58.5% ▲2022년 2학기 41.7%의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도 인플레 해소 현상이 더 뚜렷한 것이다. 2019년 2학기 교양과목 A학점 비율은 ▲고려대 50.3% ▲연세대

52.9% ▲성균관대 34.6% ▲한양대 46.8% ▲동국대 30.4%의 수치를 보였다. 이후 2022년 2학기에는 ▲고려대 61.7% ▲연세대 61% ▲성균관대 48.9% ▲한양대 52.9% ▲동국대 46.8%의 수치를 보이며 여전히 2019년 2학기 대비 10%p가량 차이가 났다.

단, ▲고려대의 경우 교과목에 따라 일부 절대평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의 경우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세대 ▲동국대는 수강인원 9명 이하 수업을 절대평가로 한다. 우리학교는 2023년 1학기부터 ▲학점 표준화 제도 A- 이상 45% ▲수강인원 20명 이하 강좌 상대평가 미적용 등 학점 관련 제도가 적용된다.

우리학교의 경우 2022년 2학기 41.7%로 2019년 2학기 40.9%와 비교해 0.8%p의 근소한 차이를 나



교양과목 학점 인플레이션이 해소됐다. (사진=대학주보DB)

타냈다. 이는 인플레 현상 고점인 2020년 1학기 비율(62.1%)에 비해 20.4%p 떨어진 수치이다. 기존 학점 표준화 제도 기준인 B+ 이상 비율 40%도 회복됐다. 고점이었던 2020년 1학기 74.5%에서 2022년 2학기 49.1%까지 25.4%p가 감소한 것이다. 2022년 2학기 비율(49.1%)은 2019년 2학기 비율(49%)과 유사한 수치로 빠르게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분이수교과 교양 과목을 수강 중인 홍기혜(국어국문학

2021) 씨는 “코로나 학번이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로 비교적 좋은 학점을 받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으로 나가는 시기이다”며 “상대평가가 변별력 있다는 점은 좋지만, 다른 학교도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학교도 교육과정 개편에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생명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A 씨 역시 “교양수업에서 만큼은 성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며 “성적 경쟁이 완화된다면 교양수업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생희(총학) ‘SKETCH’는 2024년에 예정된 후마니타스(후마)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TF팀을 모집했다. 서울캠 총학은 ‘후마 교양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제일 먼저 실행하고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품새부 3인방 태극마크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지난달 28일 경상북도 영천시에 서 제19회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선발 재선발전이 열렸다. 이번 재선발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면서 진행된 것이다. 작년에 열린 선발전에서 차예은(태권도학 2020) 선수는 2위를 하며 아쉽게 국가대표를 놓쳤으나 이날 당당히 품새종목 1위에 오르며 기적같은 순간을 선사했다. 태극마크를 획득한 차 선수는 9월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치르게 됐다.

차 선수는 “원래 자유 품새 선수인데, 이번에는 공인 품새까지 다 잘 해야 하는 경기였다. 그럼에도 재선발전이 내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했다”며 경기를 회상했다. 이어 “앞으로는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품새부 전민우 감독은 “차예은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명단이 없었는데 재선발전 기회를 얻어서 선발이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팀 전체가 아주 행복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한 품새부 선수들

(사진=품새부 제공)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전라북도 고창군 군립체육관에서는 제31회 청두 세계대학경기대회 국가대표 재선발 대회가 열렸다. 재선발전은 코로나19 여파로 개최국인 중국에서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 인해 작년에 이미 선발됐던 품새부 김경규(태권도학 2020) 선수, 신우섭(태권도학 2022) 선수는 국가대표 자리를 두고 다시 한번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두 선수는 각 복식전 2위, 남자 단체전 5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굳건히 지켜냈다. 차 선수는 재선발전에 처음 참여해 여자 개인전 1위에 올랐다.

김 선수는 “안생의 롤모델이자

태권도 스승님이신 아버지의 지도력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며 “국가대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입장으로서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목표였기에 간절함으로 지켜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이에 걸맞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신 선수는 “작년에 5위로 선발되고 이번에 다시 5위로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시합에 임할 것이며, 청두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1등을 해 당당히 귀국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 감독은 “기존에 선발됐던 선수들이 다시 재선발전을 했기 때

문에 부담감이 있었을텐데 작년 그대로 결과가 났다”는 말을 전하며 “작년에 출전하지 않았던 차예은 선수가 재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추가 선발되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고 기쁨을 만끽했다.

올해 들어 체육부는 품새부에게 일정 부분 지원하던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전 감독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지원이 끊기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렇기에 선수들이 더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꿈을 위해 달리고 있기에 다독거리며 진행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더 뜻깊게 다가온다”고 남은 소감을 밝혔다.

글쓰기 클리닉 모집 중

고도희 기자 kdhistory@khu.ac.kr

경희글쓰기센터(글쓰기센터)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글쓰기 클리닉은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글쓰기 교과 교수들에게 1:1로 첨삭받을 수 있다.

글쓰기센터는 2020년 9월 설립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피드백을 시작했다. 국제캠퍼스 글쓰기센터에서는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서울캠퍼스 글쓰기센터는 올해부터 대면 클리닉을 재개해 오프라인 첨삭 또한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접수 시, 클리닉 신청서와 첨삭 받고 싶은 글을 제출하면 된다. 학생들은 학위논문을 제외한 감상문, 수필, 자기소개서 등 직접 작성한 모든 종류의 글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일주일 안으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다.

한 학기 동안 운영되는 이번 클리닉은 선착순 마감 전까지 상시 모집하며 캠퍼스당 150명이다. 글쓰기센터 국제캠 관계자는 “기말 과제를 앞두고 신청이 몰리는 편”이라며 선착순 마감 전 신청하기를 당부했다.